

오피니언

김별아의 문학과 삶



나, 너, 그리고 우리

몇 해 전 캐나다의 서쪽 해안도시에 거처를 마련하고 머무르는 동안,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 영어를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상이었다. "엄마, 그냥 중국 아줌마들처럼 단어를 외쳐. 그게 훨씬 낫을 전달하기 쉬워."

문장 구조 따윈 아랑곳없이 단어 몇 개만으로 씩씩하게(게다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친구 엄마들을 보며 아이가 답답해했다.

그러서 나는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할 것도 아니면서 비싼 수업료를 감수하고 튜터(개인교사)를 구했다. 조지(George)는 일찌감치 그곳에서 유학 중이던 여고 동창생을 통해 소개받은 선생님이었다.

우리가 한국어로 다시 돌아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암 선고를 받고 지금은 세상을 떠난 조지는 참 좋은 선생님이었다. 언어의 뇌가 녹스 탓인지 아무리 해도 영어는 지독하게 늘지 않았지만, 나는 세월과 함께 갈고 닦은 잔머리와 눈치를 통해 제법 조지의 '좋은 학생'이 되었다.

1941년 생으로 독일에서 태어나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어머니를 따라 이탈리아를 거쳐 영국으로 망명한 조지는 그야말로 '역사' 자체를 살린 사람이었다.

를 거쳐 영국으로 망명한 조지는 그야말로 '역사' 자체를 살린 사람이었다. 나는 책에서만 읽었던 세계사를 살아있는 개인사로 새로이 들었고, 조지는 현지 신문에 게재되는 국제 뉴스 중 한국 소식을 꼬박꼬박 찾아와 함께 읽고 내 의견을 물었다.

언어 구사라는 측면에서 조지와 나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지만 우리가 나눈 대화의 내용은 제법 진지하고 수준 높았다. 내가 도저히 영어로 표현할 수 없어 '속이 터지는' 부분에서는 조지가 '알아듣고' 이해해줬다.

그런데 조지가 내 표현 중에 지적했던 점 하나가 지금도 기억 속에 선명하다. 그는 내가 한국 역사나 뉴스에 대해 이야기하며 의견을 밝힐 때 주어를 '나(I)' 대신 '우리(We)'라고 표현하는 말버릇이 매우 흥미롭다고 했다.

개인을 옹호하고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서구에서는 함부로 '우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정당이나 단체 등 특정한 무리를 지칭할 때만 쓴다는 것이다.

지칭할 때만 쓴다는 것이다. 지적을 받고 나서야 내가 왜 '나'의 의견을 다른 이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의 것처럼 이야기했는지, 의아스럽고도 고민스러웠다.

이후로 나는 '우리'라는 표현을 조심스럽게 사용하게 되었다. 함부로 혼용하는 '나'와 '우리' 사이에 나와는 분명히 다를 '나'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바이호르 '나'와 '우리'가 마구 혼용되는 정치의 계절이다. 후보자들은 모두 '우리'를 말하며 그것이 '나'만의 생각이거나 주장이거나 희망이거나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바야흐로 '나'와 '우리'가 마구 혼용되는 정치의 계절이다. 후보자들은 모두 '우리'를 말하며 그것이 '나'만의 생각이거나 주장이거나 희망이거나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개인을 옹호하고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서구에서는 함부로 '우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정당이나 단체 등 특정한 무리를 지칭할 때만 쓴다는 것이다.

중고칼럼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들이나?



이재술

대선 후보들의 TV토론회가 장안의 화제다. 답답한 대선 판세의 숨통을 틔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안철수 변수가 아리송해지면서 TV토론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

의 승리는 역전이 아니라 대세였는데 단지 잘못된 여론조사가 닉슨의 압승이라는 사전 분위기를 만들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당시 여론조사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주로 전화를 사용했다. 당시가 1960년임을 상기한다면, 그 시절에 전화로 응답할 수 있었던 가정은 대부분 부유층이었고, 따라서 이들은 주로 공화당과 닉슨의 지지자들이었고, 그 결과는 닉슨의 압도적 우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가진 것이 많은 이들은 자신의 부와 능력을 타인과 공유하는 데 소극적이다. 자신들은 가난과는 상관이 없고 앞으로 도 과거에는 현실이 그들의 생각과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았지만 오늘 세상은 많이 바뀌었다.

데 70% 이상이 세상을 살면서 절대가난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제 부자가 자신의 부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이런 신사회적위험을 극복하고, 모두 함께 서로 도우며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는 운동이 바로 보편복지다. 보편복지는 그동안 가족과 지리적 이웃에 제한되었던 상부상조의 울타리를 국가차원으로 넓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신사회적위험을 극복하고, 모두 함께 서로 도우며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는 운동이 바로 보편복지다. 보편복지는 그동안 가족과 지리적 이웃에 제한되었던 상부상조의 울타리를 국가차원으로 넓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고

무안국제공항을 호남의 관문으로



윤진보

무안국제공항은 2007년 11월 9일 개항했으니 벌써 5년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지금도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게 사실이다.

에서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을 아우르는 신공항의 필요성이 90년대 들어 대두됐고 이에 따라 1995년부터 12년간의 공사 끝에 무안국제공항이 탄생했다.

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에서는 적자항공사 재정지원, 관광업계 인센티브 제공, 주차장 이용료와 항공사 착륙료 감면, 면세점 운영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전남도에서는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를 위해 정부와 지속 협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전남도에서는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를 위해 정부와 지속 협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안광항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접근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가고 있다.

작년에 발표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을 통해 정부는 2014년 호남고속철도 개통 시기를 감안하여 광주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한다는 것을 고시했다.

그리고 전국 15개 공항 중 인천공항과 무안공항을 비롯한 8개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군산공항 등 나머지 7개 공항은 국내공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일련의 노력과 진행 계획을 볼 때 지금은 무안공항이 하루빨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고민해야 할 단계이지 광주공항으로 국제선 취항 등을 운운하는 것은 갈등을 부추겨 정부의 투자 지연의 빌미를 주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노력과 진행 계획을 볼 때 지금은 무안공항이 하루빨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고민해야 할 단계이지 광주공항으로 국제선 취항 등을 운운하는 것은 갈등을 부추겨 정부의 투자 지연의 빌미를 주는 것이다.

지만 도박중독자가 양산될 토양이 되고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오죽하면 '도박 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붙었을까 싶다.

따라서 무엇보다 당사자가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최선이다. 게다가 중독자들이 도박의 덫에서 빠져나오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도 시급하다.

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가장 강렬하게 유혹을 느끼는 것이 도박이라 한다. 단 항방에 사업자금을 만회하기 위해 도박에 관심을 갖다가 중독돼 결국 마지못해 남은 재산마저 탕진한 사람도 있다.

무분별하게 팽창하는 사행산업 엄격한 관리 필요

불법 인터넷 도박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범죄조직들은 최소 수천억 원이 오가는 경마·경륜·경정 등 불법 도박사이트에 배당률과 경기결과를 실시간으로 중계해 수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다.

사실 불법 경마도박은 애초 사이트 자체를 개설하는 투자비용이 비교적 적으면서도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 사이트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고도 남는다. 문제는 이런 불법 사이트에 배팅자가 늘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확산되고 있음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경마 등을 레저로 생각하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 달려들다 보니 중독에 빠지는 경향이 크다는 점이다.

경마가 불법사설 도박은 경마, 경륜, 경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카지노, 복권, 스포츠도 등 사행산업이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게 현실이다.

사립마다 사행 이유야 모두 그럴 듯하겠지만 도박중독자가 양산될 토양이 되고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시설

원전 총체적 비리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원전 부품 납품비리와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비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원전 부품 품질검증서 위조사건이 터진데 이어 국내산 원전 부품도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한 사실과 원전 콘크리트 구조물 안전문제가 추가로 밝혀지는 등 총체적 비리가 불거진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일 국내 원전 부품 제작사 2곳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밸브, 웨어링 등을 영광 1·2·3·4호기와 고리 2호기에 납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작사는 최근 2년간 138개 품목, 966개 부품에 대해 안전시험을 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처럼 속여 납품했다.

감사원도 '국가핵심기반시설 위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통해 영광원전에 이어 고리원전에도 시험성적을 위조한 부품이 공급됐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해 A업체와 '2차 기기 냉각해수펌프' 등 9건(109억5000만원), B업체와 '디젤 엔진용 실린더 헤드' 등 2건(금액 4억

7000만 원)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공인기관의 직인을 도용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거나 시험성적서 날짜 등을 바꿔치는 수법으로 서류를 위조했다. 원전 직원은 일단 납품받은 부품을 보관 장소에서 빼돌렸다가 새 제품인 것처럼 다시 납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가로챘다고 한다.

원전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미국의 드라마일도 옛 소련의 체르노빌, 일본 후쿠지마 원전사고의 후유증이 아직까지 심각한 것만 봐도 이를 증명하고 남음이 있다.

사법당국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범법자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 비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당국도 부품 전수조사를 서둘러 실시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작통에 잠적, 소비자 농락하는 소셜커머스

스마트폰 보급으로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시장이 2년 사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어느 날, 어느 날처럼 사람들을 치료하고, 위로하는데 여념이 없는 당신께 측근들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찾고 계신가?"라는 말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나?"고 반문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신다.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10월 말까지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접수된 광주·전남지역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3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가량 증가했다. 특히 전담은 1년 사이 상담건수가 무려 46.2%나 급증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이 55건(17.0%)으로 가장 많았고, '포인트·상품권 관련 피해' 44건(14.1%), '유효기간 경과' 41건(13.1%), '청약철회 거부' 31건(9.9%), '연락두절' 25건(8.0%) 등의 순이었다.

피해 사례 가운데는 주문 상품 및 상품권 등이 아예 배달되지 않거나 정품이 아닌 위조상품을 보낸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특히 피해 대상의 85.8%가 20~30대에 나타나 경제적 여유가 없는 그들로서는 심적 고통이 클 수밖에 없다.

소셜커머스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매자 스스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우선 소셜커머스 사업자와 상품 제공업체 모두 믿을 수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한다. 또, 총동적으로 구입하거나 불필요하게 구입했다면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의사를 남기고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실사,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주문 금액의 70%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 등은 '뒤틀다방' 소포장 업자를 색출해 엄히 처벌하고, 사이트 차단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모 케이블 방송사의 인기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4'가 9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슈퍼스타K(슈스케)는 신인 발굴을 위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4년째를 맞은 올해도 어김없이 절정의 인기를 누렸다.

허각과 율라라세션, 버스커버스커 등 입상자는 물론 4인조 걸그룹 '미쓰에이'의 광주 출신 수지도 입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뜬 스타다.

올해는 전국에서 208만명의 가수 지망생이 몰렸고,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평균 8%대의 시청률로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을 통틀어 동시간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라이벌 대결과 매주 1명씩 떨어뜨리는 '원샷 킬' 방식의 진행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아 매주 금요일 밤이면 온가족을 TV 앞으로 불러모았다.

시즌4에서는 '엄친아'의 전형인 로이킴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로이킴은 학력이나 외모, 집안 환경면에서 엄친아로 불릴만큼 나무랄데가 없다.

시즌4에서는 '엄친아'의 전형인 로이킴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로이킴은 학력이나 외모, 집안 환경면에서 엄친아로 불릴만큼 나무랄데가 없다.

홍대 밴드인 디펄스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5억 원의 주인공이 됐다.

시즌4에서는 최후 3인인 로이킴, 디펄스, 정준영이 유독 사랑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독특한 색깔로 시청자들에게 어필했고, 로이킴은 보수, 디펄스는 진보, 정준영은 아웃사이더로 인식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결승에 오른 로이킴과 디펄스를 대상으로 지역별·연령별 인기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마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 투표와 흡사했다는 점이다.

수도권과 강원을 제외하면 로이킴은 영남권에서, 디펄스는 호남·충청 등 서부권에서 인기를 얻었다. 연령에서도 20~30대에서는 디펄스가, 40대 이상에서는 로이킴이 앞섰다.

정준영은 결승전을 앞두고 탈락했지만 인기면에서 안철수를 연상시켰다. 3각축이던 대선 구도가 안철수의 사퇴로 양자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시즌4를 보면서 올 대선 과정이 자꾸 오버랩됐다. 박빙의 승부일때도 벌써부터 대선 결과가 궁금해진다.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gy@kwangju.co.kr

광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대표전화 222-8111-2200-551
www.kwangju.co.kr